

재난시의 피난처 (긴급대피소 · 피난소)

● 긴급대피소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재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을 일컫음. 예를들어, 쓰나미의 경우 침수피해가 적은 구역의 장소, 풍수해의 경우 홍수나 토사재해의 위험이 적은 학교의 건물 등입니다. 재난시마다 긴급대피소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재난시에 어느 장소에 피난해야 하는 것인지 평소에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해의 위험성이 없는 지인이나 친인척 집 등을 긴급피난소로 이용하는 것도 적절합니다.

● 피난소

자택이 피해를 입어 귀가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기간 피난생활을 보낼 수 있는 장소. 재해의 종류를 불문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의 긴급대피소 대부분은 계속해서 피난소로써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택이나 지역의 안전이 확보됨에 따라 귀가바랍니다.

● 긴급대피소 · 피난소 일관

이 표에는 주소에 따라 가장 근접한 긴급대피소를 기재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 긴급대피소에 피난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긴급대피경로도를 참고하여 재난시의 피난소로 피난길을 몇가지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 「재난시 주의사항」의 관점

△ 부지의 일부 등이, 경계구역 안에 들어가기위해, 「비고」란의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긴급시에만 이용하는 시설

× 경계구역 안에 들어가기위해, 원칙, 이용불가시설.

● 건물 내 긴급대피소 (토사재해, 홍수, 쓰나미의 경우, 피난소)

(표)

● 건물 밖 긴급대피소 (지진, 쓰나미, 대형화재의 경우)

(표)